

사회 문화: 평화 공존을 지향하는 새로운 접근

이우영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일상 생활에도 분단의 흔적은 있다

O 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T 실제로 통일을 절실히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는 의문이다. 물론 각
종 여론 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를 상회하지만, 이것은 객관식
정답 맞추기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통일이 필
요하다는 응답이 너무나 정답 같기 때문이
다. 실제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층 면
접을 하거나, 일상 대화 속에서는 통일이 부
담스럽다는 사람이 훨씬 많다. 젊은이들은
북한이 지저분하고 싫어서 그냥 자유 왕래만
되었으면 하고, 주부들은 생활 환경의 악화
와 치안 문제까지 걱정한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 가운데서는 주가 폭락이 예상되므로 통
일이 될 듯 싶으면, 주식 처분하고 하와이로
이민가겠다는 사람도 있다.

통일에 대해서 거부감이 적지 않은 것은
독일 통일의 후유증을 목격한 탓도 있겠지
만, 이에 못지 않게 분단에 익숙해져서 분단
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각종 문제를
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연구

자들은 통일 비용의 엄청난을 일반인들은 이
해조차 못하는 숫자의 단위로 이야기하고 있
지만, 그 비용은 미래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이 매년 쏟아붓고 있는 군사비
등은 대부분이 불필요한 지출이다. 현재의
분단 구조가 존속하는 한, IMF에 실업자가
넘쳐나도 식량난에 아사자가 속출해도 남북
한 모두 울며 겨자 먹기로 탱크와 비행기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생산에 투입
될 수 있는 200만 가까운 왕성한 노동력을
군대에 묶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분단 비용의 문제는 단순히 밖으
로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제적
인 문제는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나, 반세기 동안의 분단은 보이지 않고,
의식하지 못하는 채로 일상 생활 곳곳에 미
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의 기본적인 정서
가 대결과 적대이다. 서해교전에서 의미없이
죽은 수십 명의 북한의 젊은 군인들을 안쓰
러워하는 사람은 없고, '통쾌한 승리' 만이 이
야기거리이다. 우리의 아이들은 굶주리는
(북한의) 아이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아이
다운' 사고를 하기 보다는 적의 아이들이기

기존 통일 논의는 통일을 이루겠다는 생각보다 자신이 주장하는 통일이 옳음을 그리고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통일 방식의 틀림을 입증하는 데 진력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 통일 논의가 통일을 향한 것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이념 투쟁 그리고 정치 투쟁에 다름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한의 보통 사람들에게 통일이 어떤 의미가 있고, 통일의 구체적인 모습과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다. 항상 통일을 이야기하였지만 통일의 대상이자 주체인 남북한 사람들과 그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말장난'에 불과하였다.

때문에,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는 '아이답지 않은' 생각을 하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전쟁의 위협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전투적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으며, (간첩일지 모르므로) 주위 사람을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도록 강요받고 있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성급한 통일 논의보다 평화적 공존부터

남북한이 반세기 동안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다원화된 남한 사회의 여러 집단들이 항상 티격태격하고 있으면서도 의견이 합쳐지는 부분이 하나 있다. 최소한 남북한 당국이나 주민 모두가 외면적으로는 통일을 바라고 있으며, 명시적으로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른 시일 안에 통일이 될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러한 현상은 분명히 모순적이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 하나는 민족 구성원이 통일을 바라고 있지만 민족 외 세력(예를 들어, 주변 국가나 민족)이 통일을 저해하

고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통일을 바란다고 모두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통일을 원하지 않는 세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주변 국가 어디도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한다고 주장하거나 통일을 저해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지는 않으므로, 주변의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우리 문제를 한번 따져보자. 곰곰이 생각해보면 기존 통일 논의는 통일을 이루겠다는 생각보다 자신이 주장하는 통일이 옳음을 그리고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통일 방식의 틀림을 입증하는 데 진력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 통일 논의가 통일을 향한 것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이념 투쟁 그리고 정치 투쟁에 다름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한의 보통 사람들에게 통일이 어떤 의미가 있고, 통일의 구체적인 모습과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다. 항상 통일을 이야기하였지만 통일의 대상이자 주체인 남북한 사람들과 그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말장난'에 불과하

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급격히 북한이 내부적으로 붕괴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오늘 내일 안에 통일될 가능성은 없다(사실 북한

의 급격한 몰락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불어라 자유의 바람아'라는 생각을 갖고 흡수 통일을 열망하는 사람이 여전히 적지 않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남한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북한을 '흡수'할 능력이 없다.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통일의 자세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을 빨갱이로 생각하고 있고,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을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믿고 있다. 항상 나를 혹은 우리를 노리는 사람들과 같은 직장에서, 같은 골목에서 살 수 있겠는가?

흔히 구서독의 경제력이 구동독을 흡수하였다고 말할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었다. 구서독은 구동독과 그 주민들을 '흡수'할 수 있는 안정된 민주 정치 구조, 탁월한 사회 복지 능력 등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독일 통일 이후 구 동서독 주민간에 사회 갈등이 적지 않다고 하지만 그들은 우리처럼 피를 흘리며 싸운 경험도 없었고, 당연히 불구대천지 원수로 삼고 살아오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결론은 자명해진다. 통일할 능력

통일할 능력도 없고 통일을 위한 자세도 안되어 있다면 통일은 뒤로 미루고 통일을 위한 준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을 위하여 준비할 것은 대단히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적대적인 대치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로 합치기 전에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 없고 통일을 위한 자세도 안되어 있다면 통일은 뒤로 미루고 통일을 위한 준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을 위하여 준비할 것은 대단히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적대적인 대치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로 합치기 전에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 문화 교류의 반성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공존한다는 것은 대결과 경쟁의 적대 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상호 의존 관계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접촉을 확대하고 접촉 과정에서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남북한간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 협력이 불가피해진다. 사실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남북한간 그

그동안 사회 문화 교류가 지지부진하였던 것은 첫째, 사회 문화 교류도 체제 경쟁 혹은 체제 홍보의 수단으로 취급한 경향이 강했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체제가 우월적이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사회 문화 교류를 강조하였다는 사실에서 남북한 특히 남북한 지배층이 사회 문화 교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2차고향방문단이 좌절된 것은 고향방문단의 부수적인 사업에 불과한 예술단 공연의 작품 선정이었다는 사실이 좋은 보기가 된다.

리고 남한 내부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어 왔지만, 남북한간 사회 문화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 사회 문화 교류의 성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 특히, 교류와 협력을 분리해본다면 남북한간에 '협력' 사업은 적지 않게 이루어졌지만 '교류' 사업은 두드러지는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협력에 비해 교류 사업이 적다는 것은 분야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즉, 협력 사업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경제 분야의 남북 관계 개선이 두드러지는 반면, 교류가 중심이 되는 사회나 문화 분야의 관계 개선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김대중 정부가 출현한 이후 정경 분리 정책에 힘입어 사회 문화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음은 분명하나, 그 수준은 기대 이하이다. 모두가 통일을 바라면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 문화의 교류에 대해서는 모두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실제적 성과가 없는 것도 논리적으로 모순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사회 문화 교류가 지지부진하였던 것은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사회 문화 교류도 체제 경쟁 혹은 체제 홍보의

수단으로 취급한 경향이 강했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체제가 우월적이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사회 문화 교류를 강조하였다는 사실에서 남북한 특히 남북한 지배층이 사회 문화 교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2차고향방문단이 좌절된 것은 고향방문단의 부수적인 사업에 불과한 예술단 공연의 작품 선정이었다는 사실이 좋은 보기가 된다. 당시 문제가 되었던 것은 '피바다' 등의 혁명 가극의 남한내 공연 여부였다. '피바다'를 반드시 공연해야 한다는 북한이나 이를 절대로 허용하지 못하겠다는 남한의 입장 모두 문화 예술 교류를 정치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 문화 교류를 과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문제이다. 과시적이고 행사 위주의 사회 문화 교류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성을 갖지 못함으로써 사회 문화 교류 수준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또한 비슷한 분야에 있는 집단 혹은 개인간에 경쟁을 야기할 수 있

다. 우리의 종교가, 우리의 교파가, 우리의 교회가 먼저 북한을 가고, 교류 행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거나, 교류의 대상자는 북한에서 유명한 인물 혹은 단체나 기

관만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향성은 일종의 사회 문화 교류 자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북한 체제나 북한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교류 대상의 북한내 실태에 대한 지식없이 사회 문화 교류를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 관련 사업이나 사회 문화 교류가 일종의 유행같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교류 협력 사업에 경쟁 구조가 형성되면서 너도나도 사회 문화 교류를 추진하는 일이 적지 않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 사회와 문화에 무지한 사람 혹은 단체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교류 사업을 전개하거나 북한을 자극할 수 있으며, 사업이 성사되더라도 북한과의 사회 문화적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측의 정치적·상업적 이해에 이용될 수도 있다.

공존을 지향하는 사회 문화 교류

최근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 문화 혹은 통일 문화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늘고 있

둘째, 사회 문화 교류를 과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문제이다. 과시적이고 행사 위주의 사회 문화 교류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성을 갖지 못함으로써 사회 문화 교류 수준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셋째, 북한 체제나 북한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교류 대상의 북한내 실태에 대한 지식없이 사회 문화 교류를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다. 북한 문화는 어떤 것일까, 통일 과정에서 문화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남북한 문화 통합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따위의 생각들이다. 이와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통일 방안'으로 대변되는 정치적 통일 혹은 제도적 통합에 대한 이야기들이 벽에 다다랐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 북한 문화가 과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쉽게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 정부'가 자랑하는 정경 분리 정책은 정문 분리(정치와 문화를 분리함)도 보장할 것이고, 그렇다면 북한 문화의 '점진적' 개방 → 남북 문화 교류 → 상호 이해 증진 → 남북한간 이질성 극복과 동질성 회복 → 통일 문화 구현이라는 그럴듯한 진행 과정에 들어선 것일까?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잘 안될 것 같다. 왜냐하면 앞의 진행 과정은 근본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북한 문화와의 만남이 북한 체제나 사람에 대한 이해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하다는 것이다. 남과 북은 '반세

북한 문화의 '점진적' 개방 → 남북 문화 교류 → 상호 이해 증진 → 남북한간 이질성 극복과 동질성 회복 → 통일 문화 구현에 이르는 진행 과정이 잘 안되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 때문이다. 첫째, 북한 문화와의 만남이 북한 체제나 사람에 대한 이해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하다는 것이다. 둘째, 늘상 이야기되는 이질성 극복과 동질성 회복 테제(?)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네 문화적 풍토와 짝을 지어 제국주의적 문화 통합이라는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문화 통합 과정은 열등한 북한 문화를 초토화시키고, 상업주의의 경쟁 원리에 탁월한 남한 문화로 일방적 흡수 통합하는 모양을 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기 이상 고유의 문화를 형성하면서도 상대 문화를 만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였다. 남한은 상업성이 강조되는 자본주의 문화이고 문화적 획일성은 대단히 높으며, 완벽에 가까운 반공주의가 바닥에 깔려있는 문화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은, 특히 남한식 자본주의 문화에 아주 익숙한 젊은 세대들은 북한 문화와의 만남을 통하여 북한의 문화를 이상한 것으로, 북한 체제를 짜증나는 것으로, 북한 사람들을 이상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둘째, 늘상 이야기되는 이질성 극복과 동질성 회복 테제(?)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네 문화적 풍토와 짝을 지어 제국주의적 문화 통합이라는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문화 통합 과정은 열등한 북한 문화를 초토화시키고, 상업주의의 경쟁 원리에 탁월한 남한 문화로 일방적 흡수 통합하는 모양을 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아주 부정적으로 본다면, 북한 문화와의

만남은 반복 의식을 더욱 확대하고, 잘못된 만남은 부정적인 '문화 통일'의 기초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옛날처럼 북한 문화와 담쌓고 지내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건 그렇지 않다. 그래도 북한 영화를 보고, 소설도 읽고, 노래도 불러보

아야 통일로의 가능성이 조금씩이나마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만남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북한 문화는 남한과 다르게 발전해온 북한 체제와 사람들의 삶의 양식의 표현이다. 다름에 기초하여 북한 문화와 만날 수 있다면 남북한 문화를 애써서 성적 매김하려는 쓸데없는 노력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문화 통합은 다른 제도의 통합과 달리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접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통일을 통하여 북한을 식민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통일 과정에서 남북한 문화는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남북한 문화의 '만남은 우연'이 될 수 없지만 그 방향과 내용은 만남의 자세에 따라 전혀 다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 문화 교류가 활성화되고 진정으로 남북한 평화 공존과 장기적으로 통일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 문화 교류의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회 문화 교류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개인별·집단별로 동의의 근거는 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북한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 문화 교류를 통하여 북한을 와해시키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사회 문화 교류는 분단 반세기 동안 유리된 상태로 독자적으로 구축된 사회체제 및 문화체제를 이해함으로써, 통일 과정이나 통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통일을 촉진하는 계기로 활용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 문화 교류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사회 문화 교류를 인적 접촉이나 행사의 개최 등 외면적인 차원으로 국한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경우 북한의 태도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으며, 상호주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문화 교류는 다른 분야의 교류와 달리 반드시 인적 교류가 동반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남한에서 북한 음악 공연을 한다면 북한의 악보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

사회 문화 교류가 활성화되고 진정으로 남북한 평화 공존과 장기적으로 통일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 문화 교류의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 문화 교류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매체를 통한 사회 문화 교류도 활성화될 수 있다. 셋째, 사회 문화 교류와 관련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성장한 시민 사회의 능력을 고려할 때, 사회 문화 교류의 민간 주도를 제한하는 제도는 개선하고, 복돋을 수 있는 제도는 새롭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와 같이 사회 문화 교류의 개념을 확대한다면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매체를 통한 사회 문화 교류도 활성화될 수 있다.

셋째, 사회 문화 교류와 관련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경험과 관련된 제도들은 교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것이 많다. 그러나 사회 문화 교류 과정에서는 국가보안법과 이에 부수되는 각종 보안 관련 시행령 및 지침 등 여전히 사회 문화 교류 활성화를 제한하는 제도들이 적지 않다. 근본적으로 사회 문화 교류는 국가가 주도하기 어려운 분야이고, 성장한 시민 사회의 능력을 고려할 때, 사회 문화 교류의 민간 주도를 제한하는 제도는 개선하고, 복돋을 수 있는 제도는 새롭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보다 체계적으로 사회 문화 교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표면적으로 사회 문화 교류를 반대하지 않지만 외부 정보의 유입과 사상적 동요를 우려하는 북한은 사회 문화 교류 특히 상호주의적 성격이 두드러진 사업에 대해서는 민감한 태도를 보이

넷째, 보다 체계적으로 사회 문화 교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가능한 교류가 무엇인가를 따져보고 실현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교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 문화 교류의 주체를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나 민간이나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학생, 교사, 노조 등 각종 사회 단체나 사회 집단 그리고 지역자치단체나 지역 사회 등이 중심이 되는 사회 문화 교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민간 수준에서 사회 문화 교류를 협의하는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남북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문화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고 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가능한 교류가 무엇인가를 따져보고 실현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교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 문화 교류의 주체를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나 민간이나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학생, 교사, 노조 등 각종 사회 단체나 사회 집단 그리고 지역자치단체나 지역 사회 등이 중심이 되는 사회 문화 교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민간 수준에서 사회 문화 교류를 협의하는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간에 접촉의 면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무분별한 교류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정치·경제적 비용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일곱째, 남북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문화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남쪽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고정된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북한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다른 사회와 마찬가지로 변화하는 체제이

다. 좋아하는 노래 스타일도 변하고, 옷 입는 취향도 변한다. 또한 정책 기조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적지 않게 변한다. 남한의 경우는 사회 변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남북한 사회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사회 문화

교류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관심도 얻기 어려울 것이고 동시에 사회 문화 교류의 본래의 의미를 살리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떠한 세부 방안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한의 사회 문화가 북한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문화적 공존을 하겠다는 기본 전제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르게 말하면, 나름대로의 사회문화체제를 완성한 상대 체제의 '다름'을 인정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와 목적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사회 문화 교류는 정치적 긴장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역으로 상대 체제에 대한 이질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지난 세기의 갈등과 반목은 다음 세기에도 여전히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